

서재필과 한글 발전운동

심재기*

一. 머리말

19세기 후반의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의 힘겨루기 각축장이었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그 힘겨루기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의 힘겨루기 싸움판에 동시에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싸움판에 먹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자주자강의 역량을 키우자는 각성의 몸부림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은 대표적인 정치적 문화적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또 곧이어 6·25 사변이 발발하기까지 1세기에 가까운 세월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악몽과 같은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그 역사의 회오리바람을 헤치며 그 시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그 시대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주인공은 더욱 흔치 않다. 그러한 인물을 찾는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송재(松齋) 서재필(徐載弼)을 기억하게 된다. 그의 생애는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분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송재 서재필이 한글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만

* 본과 교수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한글이 한글로 대우받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 4월 7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독립신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재필이 창간하였고, 서재필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간의 운명을 맞았다. 따라서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통하여 어떻게 한글운동을 펼쳤는가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서재필의 한글운동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서재필과 한글 발전 운동-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서재필의 생애에서 어떤 부분이 한글운동에 헌신하는 계기를 만들었는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그것은 분명 어문 의식과 깊이 관련된 개화 계몽 사상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한 요소는 서재필의 젊은 학창시절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그 시기 서재필의 행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독립신문을 통하여 그 한글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二. 서재필의 생애

근대의 인물 중 서재필만큼 파란만장의 생애를 살면서 폭넓은 업적을 쌓은 분도 드물 것이다. 그는 명민한 천재 학생이었고 군인이었고 혁명가였다. 그는 망명의 나그네였고 고학생이었고 망한 나라의 고달픈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의학도요 의사였으며 또한 언론인으로 변신하였다. 그의 필봉은 언제나 정부를 질책하는 야인의 외침이었고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의 산울림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제에 밝은 사업가였으며 전 재산을 바치는 헌신적인 독립운동가이었다. 가끔 가끔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행정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초지일관 한 사람의 평범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의사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 의사의 이미지 속에 조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계몽사상가로서의 일면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다. 진실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호흡을 같이한 폭넓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서재필이 미국 시민으로 미국을 위하여 일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을 할애하기로 한다. 그리고 8·15 광복을 전후하여 활약한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과 행정관료로서의 일면에 대해서도, 침묵하기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서재필이 한 시대를 풍미한 다재다능한 경륜의 인물이었음을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글 발전에 공헌한 한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서재필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중에서 언어·문자활동과 관련된 이력사항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의 문필활동 특히 독립신문 발행 중에 이룩한 문필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재필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864(1세) : 서광언(徐光彦)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882(19세) : 과거(科擧)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함.

1883(20세) : 일본유학·일본 육군 소년학교 입학, 다음해 졸업.

1884(21세) : 갑신정변(甲申政變)에 가담.

3일간의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정령관(正領官).

1885(22세) : 망명(제1차 출국).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감.

1886(23세) : 펜실바니아, 해리힐맨(Harry Hillman Academy) 고등학교 입학.

1888(25세) : 펜실바니아, 해리힐맨(Harry Hillman Academy) 고등학교 졸업.

1890(27세) : 라파에드대학 입학.

1891(28세) : 라파에드대학 중퇴. 워싱턴으로 이주.

미 육군 군의총감부(軍醫總監部) 도서관의 번역사 생활 8개월.

1894(31세) : 암스트롱 양과 결혼.

1895(32세) :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

1896(33세) : 1월 1일 제1차 귀국. 중추원(中樞院) 고문으로 초빙.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7월 2일. 독립협회 결성.

1898(35세) : 5월 13일. 미국으로 돌아감(제2차 출국).

- 1898~1914(35세~51세) : 펜실바니아 대학 해부학 교수.
1907~1919(44세~56세) : 문방구점 개업.
1919~1925(56세~62세) : 독립운동. 임시정부 외교 고문. 한국 친구회 조직.
1936~1946(73세~83세) : 펜실바니아 체스터 병원 의사 생활.
1947(84세) : 제2차 귀국. 과도정부(過渡政府) 의정관(議政官).
1948(85세) : 제3차 출국
1951(88세) : 1월 5일. 펜실바니아주 미디어시에서 임종.

위의 서재필 연보는 태어나서부터 1898년 5월 13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2차 출국까지를 비교적 자세히 적었고 그 뒤로부터는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 그쳤다. 90년 가까운 서재필의 일생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시대 구분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1864~1895 (1세~32세) : 학업기.
1895~1898 (32세~35세) : 독립신문 활동기.
1898~1936 (35세~73세) : 독립운동.
1936~1951 (73세~88세) : 미국인 의사생활.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한 것은 이 글에서 학업기와 독립신문 활동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학업기에서는 서재필이 미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어문의식(語文意識)이 형성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독립신문 활동기에는 독립신문에 발표된 어문관계 논설을 토대로 서재필의 언어·문자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三. 서재필의 학업기와 그의 어문의식 형성

(1) 서재필의 한문지식

서재필의 공부는 동양의 고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으로 시작되었다. 19세 어린 나이에 입금이 친히 나와 앉아있는 전시(殿試)에서 사서삼경의 아무 대목이나 지적하면 그대로 외워야하는 암강(暗講) 과목에 칠통(七通 : A+에 해당하는 最上級)을 받아 장원급제를 하였으니 소년 서재필의 한문 실력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출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천재성은 10년 안팎의 연장자들인 김옥균, 박영효 등과 더불어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이 될 정도로 조숙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문지식은 미국에 망명하여 험혈단신 외톨이로 영어를 공부해야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말과 한문과 영어가 지니고 있는 구조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영어를 일찍 통달하는 방편이요, 또한 언어를 이해하는 첩경임을 서재필은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실제로 서재필의 놀라운 천재성은 이와 같은 언어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영어를 통달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의 한문실력은 아무 쓸모 없는 지식으로 사장(死藏)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옮겨와서 자비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처지에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1891년 미군 육군 군의(軍醫) 총감부에서 동양문 번역사로 취직하여 8개월간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의 한문실력은 당당히 제 값을 하게 된다.

당시의 사정이 송건호(1972)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¹⁾

<이때 마침 미국 군의(軍醫) 총감부에서 동양문 번역생을 구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총감부 도서관에서는 한문과 일본어로 된 의학 서적 약 5천부를 중국과 일본에서 구입하긴 했으나, 이를 분류하여 목록을 만들 만한 동양어에 능통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쌓아 놓았다.

이 소식을 들은 서재필은 곧 육군 군의 총감부로 빌링쓰 대령을 찾아갔다.

1) 宋建鎬(1972), 『偉大한 韓國人 3-松齋 徐載弼』, 太極出版社, 142~143면.

“내가 이 동양 서적을 번역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고 서재필은 자신있게 제의했다.

그러나 빌링쓰 대령은 이 처음으로 들이닥친 동양인이 과연 한문과 일본문을 잘 알아, 그 많은 서적을 번역 정리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

빌링쓰는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의 총감부 시험관 웹스터 대령에게 서재필의 학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웹스터 역시 동양어를 알 리가 없었다.

그는 한참 생각한 후

“그렇다면 워싱턴에 있는 중국·일본 두 공사관에서 한문과 일문에 대한 시험문제를 얻어다가 시험을 치르게 한 후 다시 두 곳에 보내어 채점케 하면 그 실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서재필은 이들이 하라는 대로 시험을 치루었다. 시험 문제는 우연히도 양국 대사관에서 모두 성경에서 따온 구절이었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일본어로 된 요한복음 제15장이었다.

이 구절들은 그가 이미 샌프란시스코 시대 이래로 매일같이 읽고 외우던 것이었다. 그리고 한문은 어렸을 때에 이미 시전·서전·주역 등을 배워 과거까지 급제했으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어도 토오쿄오 호산학교 시대에 보통 글로는 못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만하던 차에 더구나 문제가 그것이니, 채용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

(2) 서재필의 출세와 일본어 지식

서재필이 서양문물에 눈 뜬 것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정부에 발을 들여 놓은 19세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이른바 개화파 인사들인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과 장원급제 이후 자연스런 교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 무렵 개화승 이동인(李東仁)과의 사귀이 결정적으로 서유럽 문명의 실상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명민함은 1881년(18세) 정월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70여일간 일본에 머물러 일본의 개화문물을 둘러보고 오게 된 경위를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재필이 일본을 직접 보고 배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1883년(20세)에는 일본 동경에 있는 호산 육군소년학교에 사관생으로 입학하여 1년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일본과 일본어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

추게 된다. 더구나 1884년 6월에 서재필은 조련국(操鍊局) 사관장(士官長)으로 임명되는데, 이것은 서재필이 일본식 군사훈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그 시범을 보인 최초의 인물로서도 주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를 익히게 전에 이미 한문과 일본어에 능통한 신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84년과 1885년은 서재필의 생애에서 가장 슬프고도 찬란했던 시기였다. 1884년 4월에 동경 호산 육군 소년학교를 졸업하고 5월에 귀국한 서재필은 6월에 조련국 사관장으로 임명되어 오늘날의 제도로 바꾸어보면 사관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인 12월 5일에는 김옥균이 주도한 쿠데타 곧 갑신정변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여 이른바 삼일천하(三日天下)의 주인공이 된다. 그때 그의 직함은 병조참판 겸 정령관(兵曹參判 兼 正領官)이었다. (오늘날의 국방부차관 겸 군사령관쯤 될까?) 그러나 그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해 1885년 1월에는 일본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가는 망명 나그네의 신세가 되고 여기에서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의 망명길이 이어져서 이제 서재필은 일본어 다음으로 영어의 세계에 들어간다.

(3) 서재필의 미국행과 영어지식

스물 두 살에 지나지 않는 약관의 젊은이이지만 한 나라의 병조참판이라는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먹고 자는 것을 걱정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말도 모르는 미국 땅에서 헤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하고 고생스러웠을까? 그러나 서재필은 1885년(22세) 4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로 그 고난의 여정을 영광의 여정으로 바꾸며 살아왔다. 그는 홀렌백이란 분의 도움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펜실바니아주 월크스 베어로 옮겨와서 비로소 미국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다. 1885년에서 1887년까지 해리 힐맨 고등학교(Harry Hillman Academy)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때에 서재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이광린(1989)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²⁾

2) 李光麟(1989), 「해리 힐맨 고등학교를 찾아서」, 玄鐘敏 編(1990), 『徐載弼과 韓國民

<과목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상금이나 메달이 수여되었다. 1887년 6월 시상식이 거행되었을 때, 서재필이 수학과 라틴어, 희랍어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목록에 써여져 있었음을 볼 수 있다. (Eleventh Annual Catalogue of the Harry Hillman Academy, 1888) 1886년 9월에 입학한 서재필이 그와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입학한 지 2년째 말인 1888년 6월에, 학생회에서 개최한 연설회에서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찬사 (Eulogy on James A. Garfield)」라는 제목으로 웅변을 한 것이 2등으로 뽑혀 1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당시 윌크스 베이에서 간행된 The Wilkes-Barre Record, June 16, 1888 참조) 사실 서재필은 이 고등학교를 3년간 다니면서 문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이 때문에 졸업할 때에 학생대표로 연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위에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 23세의 청년 서재필은 미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어떤 청년보다도 더 우수한 지식인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무렵의 서재필은 영어 구사 능력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고 서양언어의 기초가 되는 라틴어와 희랍어에 대해서도 갖출 만큼의 기본지식을 갖추었음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서재필의 대학시절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에 대한 소양도 길렀다는 증거가 있다. 1989년 6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민주문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서재필 박사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현봉학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

<첫째로 그 분께서 의예과를 1년 동안 코코란 대학에서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말 무엇을 공부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에 조금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FR, GE 같은 약자들이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분은 거기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을 공부한 것 같구요, 그리고 화학과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이하략)>

『主主義』, 대한교과서주식회사.

3) 현봉학(1989), 「심포지엄 질문 및 토론 종합토론 오후」, 玄鐘敏 編(1990), 122면.

(4) 서재필의 언어관 형성

이렇게 본다면 서재필의 언어지식은 동서양 전체를 꿰뚫는다. 일찍이 한문에 능통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70여일 체류했었고 그 후 동경에 있는 호산 육군 소년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1년간 기초적인 군사학을 익히고 돌아왔다. 이것은 서재필이 상당수준의 일본어 구사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이력사항이다. 그 후로 미국에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대표로 영어 연설을 하였다. 그 무렵에 라틴어와 희랍어 공부에 특출한 실력을 보였고 의과대학에 들어간 초기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부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동방의 고전문어(古典文語)인 한문에 능통하고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양언어의 지식 위에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고전언어인 라틴어 희랍어 지식을 갖춘 후 프랑스어와 독일어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이 20대 서재필의 총체적인 언어지식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서재필의 언어관이 어떻게 정리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로운 망명객의 신세로 미국에 건너가 천신만고 끝에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미국인 의사가 된 서재필은 본국에서 역적의 신원이 풀리고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의 신분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국의 언어-문자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서둘러 개화 개명(開明)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문으로부터의 탈피요, 언문일치를 이루는 한글만 사용함으로 귀착되는 것이었다. 그 모델은 미국의 언문문자생활이었다. 서재필이 아는 한, 글은 말하듯 써야 되고 말한 대로 쓴 것이 그대로 말 들듯이 읽혀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한글만 써야 한다고 믿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영어는 낱말마다 띄어쓰는 것을 글쓰기의 초기단계부터 실시하였다. 이것은 라틴어 희랍어에서도 지켜진 전통이요 알파벳 음소문자로 글쓰기 할 때의 기본적인 제약이었다. 따라서 한글도 알파벳과 다름없는 음소문자이므로 과거의 전통이 어떠한 것이든 낱말마다 띄어쓰는 것이어야 하였다. 이것이 한글만 쓰되 반드시 띄어써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게 하였다.

서재필이 1886년에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을 때, 한글만 쓰기와 띄어쓰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와 같은 추론을 받아들일 때, 현실화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실제의 모습을 독립신문을 통하여 확인하기로 하자.

四. 독립신문의 검토

(1) 제1호

한 사람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나 되는 것일까? 어려서 배운 모어(母語)가 첫째요, 장성해서 새로운 문화에 접했을 때 거기에 능숙하게 되는 제일 외국어가 둘째다. 그 다음은 사회의 조건과 문화양상에 따라 한두 개의 외국어를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어요 둘째는 영어였다. 한국어는 태어나서 미국에 망명하기까지 22세까지 사용하였고 그 후로는 영어를 제일언어로 사용하였다. 영어를 사용한 기간이 한국어를 사용한 기간의 3배에 이른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영어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서재필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한 미국인 부인 암스트롱양과 함께 금의환향(錦衣還鄉)이라고 할 제1차 귀국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때는 미국사람으로 국적을 바꾸었기 때문에 Philip Jaisohn이라는 미국인 신분이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중추원 고문(顧問)으로 10년간 일해 달라는 조건을 수락하고 행해진 귀국이였다. 한국 혼을 지니고 한국의 개화를 염원하는 미국신사. 이것이 서재필이 1896년 1월 제1차 귀국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서재필은 귀국하던 해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설을 비롯한 일체의 기사를 서재필 혼자서 담당하였다. 이제 제1호에 실린 몇 개의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광고

[독립신문이 본국과 외국스정을 자세이 기록홀터이요 정부속과 민간 소문을 다보고홀터어라...(중략)... 무론 누구든지 무러볼 말이 잇든지 세상 사람의게 호고스븐말 잇스면 이 신문샤로 간단하게 귀절째여서 편지호면 디답홀만한 말이면 디답홀터이요 내기도 홀터이음. 한문으로 호 편지는 당초에 상관아니홈.]

이 광고문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간행되었다. 발간 초에 신문발행의 취지와 구독방법 및 독자와의 교류문제를 밝힌 것인데 여기에 이미 독립신문이 지향하는 문자생활의 기본골격 두 가지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하나는 띄어쓰기요, 또 하나는 한글만 쓰기이다.

① 띄어쓰기 원칙

이 신문샤로 간단하게 귀절째여서 편지호면

② 한글만 쓰기 원칙

한문으로 호 편지는 당초에 상관아니홈

(나) 논설 I 과, 논설 II

논설 I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호는디 조선속에 잇는 너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호여 아시게 호노라...(중략)...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너 상하귀천이 모도 보게홈이요 또 귀절을 째여 쓰기는 알아 보기 쉽도록 홈이라(이하략)]

논설 II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홈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째여 쓴 즉 아모라도 이 신문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홈이라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너 무론호고 본국 국문을 묻저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셔는 조선 국문을 아니 비오드러도 한문만 공부 호는 싸둑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호고 한문호고 비교호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흔

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지는 이 글이 조선글
 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에 모도보
 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짜둬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개 엇지 한
 심치 아니홀리요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난 말마디
 을 페이지 아니홀고 그저 줄줄너려 쓰는 짜둬에 글즈가 우희 부터는지 아려 부
 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본후에야 글즈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 편지 혼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더 보고 또 그나마 국
 문을 자조 아니 쓴느고로 서틀어서 잘못봄이라 그런고로 정부에서 너리는 명녕
 과 국가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한문못흔 인민은 나모 말만 듯고 무슴 명녕인
 줄 알고 이편이 친이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름은 무단이 병신이 됴이라 한문 못
 흔다고 그 사름이 무심흔 사름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잇
 스면 그 사름은 한문만홀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름 보다 유식홀고 늙흔
 사름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홀고 각식 물정과 학문을 비화 소
 견이 높고 형실이 정직홀면 무론 빈부 귀천 간에 그 분이 한문을 잘홀고도 다른
 것 몰오는 귀족 늙자 보다 늙흔 사름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
 름업시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너지 스팀을 알게 호라는 뜻시니 남너 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호로 걸너 몇들만 보면 새지각과 새학문이 싱길걸
 미리 아노라]

독립신문 제1호의 제1면은 3단으로 짜여 있다. 제1단의 광고는 폭이 조
 금 좁고 제2단과 제3단은 똑같은 폭으로 좀 넓게 짜여 있는데 논설 두 개
 가 연이어 실려 있다(편의상 앞의 것을 ‘논설 I’이라 하고 뒤의 것을 ‘논설
 II’로 구분함). 논설 I 과 논설 II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설 I

- ① 내외국인에게 우리 주의를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출판한다.
- ② 불편 부당한 태도로 조선인민만을 위하여 일하겠다.
- ③ 정부와 백성의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겠다.
- ④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겠다.
- ⑤ 언문으로만 쓰기와 구절 띄어쓰기를 지키겠다.
- ⑥ 정부의 잘못과 탐관오리의 고발에 적극 나서겠다.

- ⑦ 대 군주 폐하와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을 위한 신문이다.
- ⑧ 영문기사는 외국인에게 조선사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다.
- ⑨ 외국사정을 조선인민에게 알리겠다.

논설Ⅱ

- ① 국문으로만 쓰는 목적은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하려는 것이다.
- ② 구절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쉽고 자세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 ③ 조선 사람은 조선 국문을 배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국문은 배우기 쉽고 알아보기 쉬운 우수한 문자다.
- ⑤ 한문만 써온 버릇 때문에 국문의 이해가 부족하다.
- ⑥ 국문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말마디를 떼지 않기 때문이다.
- ⑦ 정부에서 한문만 쓰기 때문에 한문 못하는 인민은 정부 일을 모른다.
- ⑧ 국문만 알고 물정도 알고 학문이 있으면 한문만 알고 물정 모르는 이 보다 낫다.
- ⑨ 여자도 국문을 잘하고 행실이 좋으면 한문만 아는 귀족 남자보다 낫다.
- ⑩ 빈부 귀천 구별없이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리겠다.
- ⑪ 이 신문을 읽으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것이다.

논설Ⅰ과 논설Ⅱ를 위의 요약문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 논설Ⅰ은 독립신문의 총체적인 간행취지를 밝혔고 논설Ⅱ는 논설Ⅰ의 ⑤번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언문으로만 쓰기와 구절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독립신문을 처음 간행하던 1896년 당시에 한글전용과 띄어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실천한 사람은 어쩌면 서재필 한 사람뿐이었던지 모르겠다. 독립신문이 계속 간행되면서 서재필의 이러한 언어 문자관은 점차 확산되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결정하고 단행한 것은 서재필의 움직임 수 없는 확고한 신념에 말미암는 것이었다.

결국 독립신문 제1호의 제1면은 광고에서 논설Ⅰ을 거쳐 논설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언문으로만 쓰기’와 ‘귀절 빼어 쓰기’를 강조하고 그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논설Ⅱ의 마지막 부분, 새 지각과 새 학문이 펼쳐질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2) 주시경과의 관계

이제 우리는 서재필이 개화계몽사상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던 언어문자관 곧 띄어쓰기와 한글만 쓰기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볼 단계에 이르렀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지엽적인 한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것은 논설Ⅰ과 논설Ⅱ가 구분되어 있고 논설Ⅰ에는 ‘언문’이란 낱말이 나오고 논설Ⅱ에는 ‘국문’이라는 낱말로 일관되어 있음을 들어 논설Ⅰ과 논설Ⅱ의 필자가 다르지 않은가 의심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89년 6월에 있었던 심포지엄에서 이기문 교수가 답변한 내용이 있다. 그 답변의 마지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⁴⁾

<아무튼, 창간호의 논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해서 그것은 역시 서재필이 썼다고 보는 것이 좋겠고,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도리어 서재필이 얼마나 신문을 국문으로 쓰는 데 처음부터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우리 신문을 국문으로만 낸다고 하는 것의 이유를 다시 설명하려고 부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식자층에서 국문으로 신문을 내는 데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나 반대를 할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논설Ⅰ에는 ‘언문’이라 표현하고 논설Ⅱ에는 ‘국문’이라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의 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논설Ⅱ는 한결같이 ‘국문’이라고 하여 갑오경장 이래 훈민정음의 공식명

4) 李基文(1989), 「심포지엄 질문 및 토론 종합토론 오후」, 玄鐘敏 編(1990), 130면.

칭을 사용함에 반하여 논설 I에서는 ‘언문’이라 표현하였다. ‘언문(諺文)’은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훈민정음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명칭이었다. 이것은 한문(漢文)에 대응하는 용어이면서 훈민정음의 본뜻을 명확하게 살리는 명칭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여 한문이 글말[文語]에 쓰이는 문자임을 뜻한다면 언문은 입말[口語]에 쓰이는 문자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개화기에 민족자주의식이 싹트면서 ‘언문’이라는 낱말에서 풍기는 낮춤의 느낌을 씻어 내기 위하여 ‘국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기는 했으나 ‘언문(諺文)’이야말로 언문일치(言文一致)용 문자라는 정당한 명칭이었던 것이다. ‘언문’이란 낱말은 오히려 ‘국문’이란 낱말보다 더 친숙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낱말이었다. 그 증거가 1930년대 말에 안자산(安自山)이 발표한 ‘언문명칭론(諺文名稱論)’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⁵⁾

다음에 그 일부를 인용한다.

〈…(전략) 最初에 世宗大王이 欽定하기는 訓民正音이라 題하였으나 實稱으로 諺文이라 하였다. 後日에 혹 反切이라 함도 있으나 恒口通稱하여 온 것은 諺文이라 한 것이다. 故로 諺文이라 함은 古代人の 姓名과 如한 것이니 後人이 그것을 變作한다기는 甚히 怪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내 드르매 諺의 字意가 野鄙함으로 써 그를 避하여 雅로 變하자 함이라 하니 第一 不通의 意思라. 字學을 查하건대 文心彫龍에는 諺直語也라 하고 說文에는 諺傳言也 傳言者古語也 凡經傳所稱之諺無非前代古訓 而宋人作註 乃以俗語俗論 當之誤라 한디라, 諺은 곧 文記語가 안이오 口音語라 함이오 又是 聖人の 特訓이 안이오 民衆의 傳하는 格言이라 함이라. 此 兩義에 憑하여 諺文의 本義를 解하면 表音文字로서 社會一般에 適合한 平民의 文字라 할 것이다.

그런즉 諺文이라 함은 諺文의 價値 及其 性質을 象徵하여 作한 名稱으로서 決코 野鄙함에 안이오 가장 適切한 意義로 된 것이라 故로 이 適切한 名稱을 變改코자함은 不必要라 아니할 수 없다…(후략)…〉

안자산이 이 글을 발표한 연대가 1938년 9월이니 언문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으며 또 그 뜻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서재필이 논설 I에서 ‘언문’이라 적은 것은 한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5) 安自山(1938), 「諺文名稱論」, 『正音』 26號, 1938년 9월호.

일반 명칭을 그대로 따른 것이요, 논설Ⅱ에서는 다시 ‘국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자주주의식과 개화사상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설Ⅰ과 논설Ⅱ의 필자가 다르다고 하는 추정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자.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논설Ⅱ의 필자가 주시경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논설Ⅰ과 논설Ⅱ가 오로지 서재필에 의해 쓰여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항간에 논설Ⅱ의 주인공을 주시경으로 보려는 경향은 어째서 생긴 것일까? 그것은 개화기 국문운동을 필생의 사업으로 펼쳐온 분이 주시경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모든 국문운동에 주시경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시경은 그의 사업의 거의 전부가 한글운동이었고 서재필의 한글운동은 그의 개화계몽운동의 한가닥 가지에 불과하였다. 주시경의 주전공은 한글운동이었으나 서재필에게서는 부전공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전공 우대 성향이 독립신문 제1호의 논설Ⅱ조차도 주시경의 것으로 보려고 한 것이다.

다시금 검토해 보자. 독립신문 제1호가 간행된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은 33세의 의기발랄한 청장년으로서, 또 미국의 의사요 서양학문을 두루 섭렵한 당당한 개화 계몽의 기수로서, 그리고 독립신문의 만가지 주인으로서 그 신문을 처음 간행한 인물이었다. 한편 주시경은 개화에 열의를 품고 있으나 아직 21세의 약관이요, 배재학당의 학생으로서 독립신문사에 회계(會計) 겸 교보원(校補員)으로 취직이 된 상태였다. 주시경의 열성과 천재성이 아무리 특출하다고 해도 그 시기에 주시경이 그러한 국문의식을 확립하고 논설을 썼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무렵에 주시경은 배재학당의 학생으로서 서재필의 강의를 듣는 처지였다. 주시경의 경력을 검토하면 그가 국문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은 광무 9년(1905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뒤에 사립청년학원에 학감으로 취직이 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독립신문사 재직시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과 함께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결성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려한 흔적은 있으나 그것은 조만간 무산되었고, 이른바 주시경에게 있어서 한글운동과 한글연구는 독립신문 재직시절에 짝이 터서 학원 강사를 전전하면서 발전하다가 광무 11년(1907년) 학부 내의 국문연구소 주임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때에 절정을 이룬 것이 아닌

가 추론해 볼 수 있다.

논설Ⅱ의 필자가 주시경이 아니요 서재필일 수밖에 없는 또다른 증거는 논설Ⅱ의 중심 논조인 띄어쓰기 사상이다. 논설Ⅱ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국문으로만 쓰는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구절 띄어쓰기이다. 띄어쓰기와 국문으로만 쓰기는 광고에서 논설Ⅰ을 거쳐 논설Ⅱ까지 일관된 중심사상인데 이러한 글쓰기의 양상이 주시경의 어느 글에 나타났는가? 주시경의 저술에서 띄어쓰기와 국문으로만 쓰기가 나타나는 것은 훗날의 사건에 속한다.

한두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주시경이 독립신문에 기고한 국문론Ⅰ과 국문론Ⅱ이다. 이 기사는 독립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독립신문의 편집체제에 따라 띄어쓰기가 된 것이지 주시경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⁶⁾

주시경이 띄어쓰기와 국문만 쓰기에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증명하는 글을 몇 편 읽어보기로 하자.

(가) 吾地球가成體된後로其上에不動物과動物이生 하니

(나) 國文의名稱이發音을研究함에一事가되겟스온디國文을訓民正音, 諺文, 反切, 國文이라하는四名稱이有 하니

(다) 天下文字가二種이有 하니一은記音文字요一은記事文字라

(라)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것이다

(마) 우리가, 이러케, 아름다운, 나라에, 낳으니,

(바) 슬프다 백여년러로 서양의 강성하는 형세가 조수밀 듯 구름닷듯 동

6) 李賢熙(1988), 「유상호 “국문론” 譯註」, 『周時經學報』 제1집, 탑출판사, 199~211면.
李賢熙 교수는 주상호의 ‘국문론’을 譯註하면서 그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도움말을 실었다.

<“국문론”은 일종의 文字論으로서 周時經이 培材學堂 萬國歷史地誌 特別科에 在學하면서 獨立新聞社의 會計 校補員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 1887년 「독립신문」에 두 차례에 나누어 유상호라는 이름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연재했던 글이다. 처음 것은 독립신문 2권 47호(1897년 4월 22일과 24일)에 실렸는데 文字論의 성격을 띠고 있고 나중 것은 2권 114호와 115호(1897년 9월 25일과 28일)에 실렸는데 國文의 運用法에 대한 언급(문법서와 옥편의 필요성, 표기법 문제와 意譯의 必要性, 書法 등)을 담고 있다. (이하 생략)>

편으로더피오매.

(사) 宇宙自然의理로地球가成하매其面이水陸으로分하고

(아) 此書余自昨冬以至今日口授於學生但爲若干便宜

(가)는 1907년 4월에 尙必自國文言이란 제목으로 皇城新聞에 寄稿한 글이고, (나)는 1907년에서 1908년까지 學部內 國文研究所에서 報告한 國文研究案의 一部이며 (다)는 1909년 3월에 國文研究所에 역시 보고서로 제출한 研究書로 國文研究라는 題號를 붙이고 있다. 이 세 종류의 記事 또는 報告書는 철저한 國漢混用이요 띄어쓰기는 일체 배제되어 있다. (라)는 1910년 6월 普中親睦會報 제1호에 실린 글이다. 띄어쓰기를 해야 할 자리에 점을 찍어 구분하였다. (마) 역시 점찍기 띄어쓰기가 되었는데 1909년 2월에 어린이의 한글 학습용으로 간행한 「국문초학」이라는 책이다. 이렇듯 인색한 띄어쓰기는 (마)에 오면 아주 시원스럽게 풀린다. 이것은 1907년 박문서관에서 간행한 「월남망국스」인데 필경 출판사가 일반독자에게 많이 읽히기 위해서 빈칸 띄어쓰기를 한 것이지 번역자인 주시경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사)에서는 다시 國漢混用の 붙여쓰기가 나타나고 (아)는 아예 붙여쓰기의 정통한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 1910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것이고 (아)는 1906년 교수용 프린트물을 편철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주시경의 국어연구는 그토록 놀라운 열정과 의지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한글전용이나 띄어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음이 발견된다. 개화기 국어연구의 선각자로 주시경이 발분망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국어관은 종래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재필의 업적이 훨씬 돋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시경 높이에 눌러 서재필의 업적이 가려져 있었음은 실로 역사연구의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독립신문 제1호 제26호 (1896년 6월 4일)

독립신문 제26호 잡보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새로 훈 학부대신 신기선씨가 상소 훈였는데 머리 깎고 양복 넘는거슨 야만 이 되는 시초요 국문을 쓰고 청국 글을 폐하는 거슨 올치 안코 외국 태양역을 쓰고 청국 황태가 주신 정삭을 폐하는거슨 도리가 아니요 정부에 규칙이 잇서 너각 대신이 국스를 의론 훈여 일을 작성 훈는거슨 님군의 권리를 빼앗는 거시 오 빅성을 권리를 주는 거시니 이거슨 모도 이왕 정부에 잇던 역적들이 훈 일이 라 학부대신을 훈였스되 형공 훈기가 어려운 거시 정부 학교 학도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을 넘은 사도이요 국문을 쓰는 일은 사람을 변훈여 증승을 몬드는 거 시오 종스를 망훈고 청국 글을 폐하는 일이니 이런 때에 벼슬 훈기가 어려오니 가라 주시기를 브란다고 말슴 훈였더라

학부 대신 신기선씨의 상소를 들으니 머리 깎고 양복 넘는 거시 기화훈 사람이 야만이 되는 시초요 조선 세조대왕이 몬드신 조선글쓰는거슨 사람을 변훈여 증승을 몬든거시라 훈였고...(중략)... 우리가 다른 말은 다 상관 아니 훈되 이 몇가지 일에 말훈거슨 불가불 말을 훈여야 나라히 독립국이 될 터이요 선왕의 훈신 일이 붉아 질지라 국문이란 거슨 조선 글이요 세조대왕씨서 몬드신거시라 한문보다 빅비가 낮고 편리 훈즉 내 나라에 조흔게 잇스면 그거슬 쓰는거시 올치 이 쓰는 일은 사람을 증승 몬드는것과 又다고 훈였스니 선왕의 덕정도 아니요 조선 사람을 위훈는 것도 아니라...(중략)...

이제를 당훈야 외국 이민 훈는 조선 사람들은 아모썩록 발오고 정다운 말을 훈야 조선이 님의 나라와 又치 되기를 힘쓰는 거시 맛당 훈거늘 이런 무리훈고 압 뒤가 님지 못훈 말을 훈는 거슨 나라 위훈것도 아니요 다만 인심만 쇼동케 훈는 거시니 삼가 훈지 아니 훈면 세상에 다만 못싱긴 사람 노릇만 훈뿐이 아니라 국가에 큰 죄를 짓는걸로 우리는 생각 훈노라>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장안의 종이값을 올리고 개혁의 고삐를 조이는 일을 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만 정부관료들의 비행이나 부당함을 고발하여 이를 시정하는 일도 독립신문의 중요한 기능의 한 가지였다. 위의 인용한 잡보기사는 그러한 실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마침 국문과 한문에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소개하였거니와 학부대신 신기선은 위의 기사가 실린 일주일 후에 해직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독립협회 회원인 민상호가 임명되었다.⁷⁾

7) 吳世應(1993), 『서재필의 개혁운동과 오늘의 과제』, 고려원, 104면.

(4) 독립신문 제2권 제62호 (1897년 5월 27일)

서재필이 독립신문의 간행을 통하여 추진한 개화계몽운동은 잠자던 동방의 숨은 왕국이 점차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사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수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개혁을 앞당기게 하였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규탄하여 행정쇄신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정부 기구도 개편하고 개혁하게 하였다. 한편 사회전반을 뜯어고치도록 촉구하여 주택문제, 상수도 공급문제, 의료체계 등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남녀 평등 사상을 설파하여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운동의 성과 가운데 한글만 쓰기와 빈칸 띄어쓰기를 신문에 정착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어문생활에 새 시대를 열게 한 것은 그 어떤 문화적 업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재필은 단순한 어문학자는 아니었다. 따라서 한글운동을 주도하여 한글의 발전에 공헌은 했으며 한글 자체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이론이나 학설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문화 전반에 대한 식견이 독립신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이 독립신문 제2권 제62호와 92호에 실린 글들이다.

하나는 아래아(ㅇ)와 관련된 짧은 논평의 글이고 또 하나는 옥편(오늘날의 사전)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그 동안의 한글만 쓰기와 띄어쓰기가 우리나라 문자생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설이다.

이 두 가지 글은 벌써 10여년 전에 이기문 교수의 발굴로 세상에 발표되어 서재필의 한글운동이 그의 개화계몽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음이 증명된 바 있다.⁸⁾ 이 글에서는 서재필의 어문사상을 총체적으로 수합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옮겨 놓고 그 내용을 음미하기로 한다.

<윤치호씨의 일정 하게 작정 흐르는 말은 조흔 말이로디 아러 으즈를 다몬 뒤 밧치는네티와 토뫓 못치는네티몬쓰즈는 말은 윤치호씨가 국문을 자셔히 모르고

8) 이기문(1989),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周時經學報』 제4집, 7~21면.

흔 말이라. 언제던지 옷 아즈는 긴 음에 쓰는 거시오 아리 으즈는 싸른 음에 쓰는 거시라. 비유컨더 물 흐면 타고 다니는 물이론 말이요 말이라면 사람 흐는 말이라 흐는 거시라. 조선 사람들이 조선 말을 공부흔 일이 업는 고로 쓰기를 규칙 업시들 흐니신 대단히 모호 흐고 착란 나는 일이 만히 잇스되 만일 말을 공부를 흐야 국문으로 옥편을 만드라 늦케드면 그 옥편을 7지고 사람마다 공부를 흐야 전일흔 규모가 국중에 성길터이니 우리는 바라컨더 학부에서 이런 옥편을 흐나를 만드러 조선 사람들이 저기 나라 글을 바로 쓰게 흐야 주는거시 사업일 듯 흐더라.>

이 글은 종래에 주시경의 글로 오해되었으나 이기문(1989)에 의해 서재필의 글임이 밝혀진 것이다. 아래아(·) 음가의 소실로 19세기 말의 표기에 혼란이 오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서재필이 웃아(ㅜ)는 긴 소리이고 아래아(·)는 짧은 소리라는 견해는 자못 흥미롭다. 말(言)과 물(馬)의 장단은 모음(ㅏ·)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에 붙어있는 다른 요소(15세기에 방점으로 표기된 성조)임을 알지 못하는 서재필이 그러한 해석을 내린 것은 비록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영어를 비롯한 여러 서양언어에 대한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더 나아가 옥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진실로 선각자의 탁견이 아닐 수 없다.

(5) 제2권 제92호 (1897년 8월 5일)

<나라이 독립이 되랴면 남과 둘나 독립이 아니라 남과 꺾흐야 독립이 되는 것인더 내 나라에 조흔 것이 잇시면 그것은 아모조록 내버리지 말고 별노히 비양 흐야 세상에 형세 홀믄큼 만드러 늦코 남을 대흐야 말흐되 우리 나라에도 이러 더러흔 조흔 것이 잇다고 즈랑 흐는 것이 독립흐는 사들의 승벽이어늘 조선은 남을 대 흐야 즈랑 홀것이 별양 업스니신 아모조록 남의 조흔 것을 본 밧아 내것을 만들고 몇 해 후에나 남을 대흐야 우리 나라에도 그믄큼 조흔 것이 잇다고 홀 놀이 잇실터이요 본러는 어느 나라에서 본 밧아 왓던지 지금은 우리 나라 것이 되엇다고 홀터인디 조선에 그중 생각 잇고 학문 잇게 만든 것은 조선 국문이라. 조선 사람들이 대개 완고 흐야 조흔것이라도 남의것은 본 밧기를 조야 아니 흐고 조선것만 직히기를 질겨워 흐나 글에 당 흐여서는 조흔 조선 글은 내버

리고 청국 글을 귀어히 비화 그 글을 쓰기를 숭상 하니 미우 이상 한 것이 조선 글이 청국 글만 못 할 것 같으면 암만 내것이라도 내버리고 남의 나라 글을 숭상 하는 것이 진보 하는 사람의 일이어니와 빅빅나 나흔 국문을 내버리고 어렵고 세상에 경계 업시 모든 청국 글을 비화 그걸 숭상하기를 조아 하니 대단히 우습고 개탄할 일이다. 지금 조선에 조금치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하였고 국문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적은고로 국문이 실상 엇더케 편리하고 엇더케 학문 잇게 모든 글인줄을 조선 사람들이 모른지라. 나라마다 쓰는 글이라 하는 것은 하는 말과 갖춰 책을 넘어 들니거드면 말하는 것과 일반이어늘 조선은 한문으로 책을 만들고 문적을 만드려 넘으니 글과 말이 다른지라. 그리 한 즉 말 공부 새로 하고 글 공부 새로 하여야 홀터이요 설령 글공부한 사람이라도 남이 책 읽는 것을 듯고는 무슨 말인지를 모른지라. 지금 쇼위 공부 하였다는 사람은 국문을 숭상하기를 조아 아니 할것이 한문을 공부 하였 신즉 그 비흔 것을 가지고 남보다 유식 한테 하라니신 만일 국문으로 책과 문적을 만드려 전국 인민이 다 학문 잇게 되거드면 조국의 유식한 표가 드러나지 아니 할가 두려워 하고 또 한문을 공부할 하였고 국문은 공부를 아니한 고로 한문을 조국의 국문보다 더 아는지라. 그리 하나 그런 사람이 국중에 몇이 잇시리요. 슈호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한문 아는 자세 하고 권리를 모도치지 하여 그남져지 전국 인민을 압제 하라는 풍속이니 국문 숭상하기를 엇지 이런 사람들이 조아 하리요. 그리 하나 나라론 것은 몇 사람만 위 히서 모든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을 모도 위 하여 모든것이요 전국 인민이 모도 학문이 잇고 지식이 잇게 되어야 그 나라이 남의게 대접을 받고 조국 독립을 보호 하며 스 룡 공 상이 늘어가는 법이라. 지금 조선에 매일 급선 무는 교육인데 교육을 식히라면 남의 나라 글과 말을 비흔 후에 한문을 가르치라 하거드면 교육할 사람이 몇이 못될지라. 그런 고로 각식 학문 책을 국문으로 번역 하여 가르쳐야 남녀와 빈부가 다 조금식이라도 학문을 비호지 한문 비화가지고 한문으로 다른 학문 히호려 하거드면 국중에 이십여년 그노릇만 할 사람이 몇이 못 될지라. 국문으로 책을 번역 하자면 두 가지 일을 매일 본져 하여야 홀터이라. 첫지는 국문으로 옥편을 만드려 글자 쓰는 법을 정히 늦코 그디로 가르쳐 아즈와 비즈를 합하거드면 아비라 하논디 뜻인 즉 업이의 남편이요 부모 중에 사나히라. 그러케 주를 내어 전국 인민을 가르쳐 늦커드면 아비 두즈면 사람마다 무슨 말인지를 알터이요 말도 하여도 아비요 책을 보아도 아비라. 누가 모를 사람이 잇시리요. 그러치만 한문으로 하거드면 아즈를 써 늦커드면 한문하는 사람은 보고 아비준줄 알게니와 한문 못 하는 사람은 모를 터이요 또 넓히여 들니드러도 부라 하니 부를 아비로 알 사람이 몇이 잇시리요. 이걸 한가지 보거드면 다른 말을 다 미루어 알지라. 그런 고로 국문이 한문보다 조선 사람의게 대하여서는 더 편리한 것을 가히 알지라.

돌지는 국문을 쓸 때에 독립신문 모양으로 말미다 써여 쓰거드면 적게 보고 넓
 기에 불편한 일이 업슬터 이요 사람이 무슴 말이던지 보거드면 그 말 뜻을 곳
 알지라. 만일 모르는 말이 잇시면 옥편문 써드러보면 쥬가 잇실터인즉 그 말 뜻
 을 쥬를 보면 알터이요, 글즈 쓰는 법을 정 혀여 노앗신즉 다른 말과 석길 리가
 업실지라. 비유컨더 말이라 하면 혀와 입술로 혀는 말이요 물이라 하면 타고 다
 니는 증승이던지 곡식 되는 물이라. 그리한즉 곡식 되는 기계와 타고 다니는 증
 승이 다 물이라. 무슴 그 말인지 현황 홀듯혀며 그리혀되 경계를 생각 혀여 불
 진더 타고 다니는 물인지 곡식 되는 물인지 가히 알것이 비유컨더 물이 사람을
 춘다 혀거드면 만일 사람이 무슴 물인지 몰나 옥편을 보거드면 쥬가 돌이라. 혀
 나는 증승이요 혀나는 기계인즉 의례히 그 사람이 알기를 그 글에 물이라 혀것
 슨 증승으로 혀 말이요 곡식 되는 물이 아니라. 엇지 그리한고혀니 곡식 되는
 물이 사람을 찰슈가 업는 것은 대개 생각 잇는 사람은 알터이요 그 말을 뒤집어
 말혀되 쓸 혀 물에 슝십량이라 하면 의례히 사람이 그 물을 곡식 되는 물노 알
 지 타고 다니는 증승으로 알 리가 업고 타고 다니는 증승이나 곡식 되는 기계
 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 혀는 말과는 다른 것을 곳 알 것이 사람이 혀는 말은 옷
 마즈에 이을을 혀엇고 증승과 기계는 아리 마즈에 이을을 혀엿시니 엇지 현황
 홀 묘리가 잇시리요. 한문 혀는 사람들이 말혀되 한문 글즈로 쓰지 아니 하면
 조선 말에 모를 말이 만히 잇다 혀나 그것은 다몬 한문 공부몬 혀고 국문 공부
 는 아니한 사람의 말이라. 설령 독립 신문이라 하면 독립도 한문 글즈요 신문도
 한문 글즈로 쓰나 그것은 국문을 공부 아니 혀엿기에 홀노독 설립 새신 드를문
 즘 생각 혀고 독립이론 말은 남의게 의지 아니 혀는 것을 독립이라 혀는 것으로
 는 비호지 아니한 탓이라. 만일 조선 인민을 그르치되 독립이론 말은 남의게 의
 지 아니 혀는 것으로 그르쳐 노홀 것 그하면 독립문 보고도 그 뜻을 알터 이요
 홀노독 설립을 비호지 아니한 사람도 뜻을 칙을 보고도 알터이요 누가 말혀는
 걸 듯고도 알터이라. 조선에 한문 글즈로 된 말이 만히 잇시나 그것을 한문을
 쥬를 내여 그르치되 말고 국문으로 쥬를 내여 그르쳐 노홀 것 그하면 뜻도 더
 쇼상히 알터이요 비호기도 더 쉽고 말과 글이 그호질터이요. 한문 생각은 당초에
 혀지도 아니 홀 터이라. 우리가 바라컨더 조선 학부에서 조선 국문 옥편을 몬드
 러 말 쓰는 규칙과 문법을 정혀야 전국이 그 옥편을 좃츠 말과 글이 그도록 쓰
 고 넓게 혀며 각식 한문 칙을 번력 할새에 이 옥편에 잇는 규칙대로 일정 혀 규
 모를 그지고 혀게 몬드는 것이 조선 교육 혀는 기초로 우리는 알고 또혀 조선
 독립과 사람의 생각에 크게 관계가 잇는줄노 우리는 생각 혀노라. 조선에서 사
 람들이 한문 글즈를 그지고 통정을 혀기를 장구히 홀 것 그하면 독립 혀는 생각
 은 업서질 듯 혀더라.>

이 글은 우리나라 언어·문자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한글전용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립신문이 창간된 지 1년 반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창간 초의 취지대로 독립신문을 한글만 쓰기와 빈칸 띄어쓰기로 발행해 온 서재필로서는 이 논설이 종래 주장의 반복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옥편(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한글 교육만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완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문은 한문보다 우수한 글이다.
2. 조선의 교육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쳐야 한다.
3. 그러려면 옥편을 만들어야 한다.
4. 그러려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5. 한자사용은 독립을 저해한다.

특히 이 글의 마지막 부분 <조선에서 사람들이 한문 글조를 ㄹ지고 통정을 ㅎ기를 장구히 ㅎ 것 ㄹ면 독립ㅎ는 ㅎ각은 업서질 듯 ㅎ더라>라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 서재필이 간접적으로 한자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글전용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어문정책의 정당한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의 서재필로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주장이었다. 미국의 발전된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경험하고 돌아와 본 조국의 모습은 너무도 암담한 것이었고 한자에 의한 교육은 사서삼경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것인데 서구의 새로운 과학문물은 물밑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세월에 한자를 배우고 그것으로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것이냐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서 서재필은 한글만으로 서양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五. 서재필의 선택

그러면 서재필은 어째서 그 당시로서는 급진적이고 과격일 수밖에 없는 띄어쓰기(서재필의 용어로 귀절뺀어쓰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빈칸 띄어쓰기’라고 부른다)⁹⁾와 한글만 쓰기(서재필의 용어로 국문/언문으로만 쓰기)를 주장하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 잠시 서재필의 정신세계로 들어가 보자.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일백여년에 불과한 과거인데 서재필이 직접 언어 문자에 대한 견해를 독립신문 이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니 우리는 독립신문의 기사(주로 논설)를 통하여 서재필의 언어·문자관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독립신문에 밝힌 기사 내용의 바깥까지 뻗는다. 다시 말하여 서재필이 한글만 쓰기와 빈칸 띄어쓰기를 결정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재필이 1896년에 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 부인과 함께 귀국하여 모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그가 지니고 있던 문화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풍토에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즉 그 문화적 배경은 영어를 말하고 알파벳을 사용하여 그 언어를 표기하는 미국의 언어문자생활이었으므로 그것과 같은 양상의 언어 문자생활이 조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리라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서재필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동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두루 섭렵한 세계적 지식인이었다. 만일에 그가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동서양의 문화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여유있게 동양사상과 동양언어들, 그리고 서양사상과 서양언어들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의 언어·문자관은 훨씬 다른 양상을 띠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재필은 기우는 나라에서 급진적인 혁명을 시도하다가 불행하게도 그것이 실패하여 망명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의 성실성

9) 이 글의 기본 논조는 이기문(1989)와 이기문(1990)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기문(1989)과 이기문(1990)은 완전히 같은 논문인데 앞의 것은 『周時經學報』 4집(7~21면)이고, 뒤의 것은 玄鐘敏 編, 『徐載弼과 韓國民主主義』(46~66면)이다.

과 노력이 크게 좌우했겠지만 망명의 땅 미국에서 기적과도 같은 도움을 얻어 학업을 이어가고 의사가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신화적 영웅이었다. 따라서 그의 문화적 선택은 흑백논리에 의한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었다. 즉 동양의 전통적인 것은 모두 버려야 할 것이요 오로지 서양식 문화양식만이 조국이 선택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한자·한문은 민족·국가의 공적(公敵)이 되는 것이고 한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자생활의 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한글은 알파벳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 다 소리글자이면서 더 나아가 음소문자이었다. 물론 한글은 음절 모아쓰기의 형식을 취하지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문일치의 문자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언문(諺文)이었다. 따라서 한글로만 적은 문자생활은 당연히 알파벳에 의한 서양의 문자생활과 같이 빈칸 띄어쓰기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띄어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재필이 미국에서 영어를 쓰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착상이었을 수도 있다.

서재필이 한문과 한글의 두 가지 문자를 놓고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생각하지 않고 단호히 한글만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그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전통은 완벽하게 배제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단호하고도 과격한 양자택일-곧 한문은 철저하게 버리고 오로지 한글만 취한다-은 서재필의 또 하나의 다른 업적, 독립협회의 결성과 그 활동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독립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가시적인 사업으로는 서대문 밖 영천, 옛날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이었다. 이 독립문 건립은 그야말로 전광석화(電光石火)와도 같은 신속하고도 시원한 사업이었다. 1896년 6월 20일자 독립신문 논설에 독립문 건립의 취지를 밝히고 7월 2일에 독립협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신문 7월 4일자에 다시 독립문과 독립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모금을 하자는 논설을 실었는데 독립문의 완공 준공식은 1897년 11월 20일이었다. 실로 1년 5개월만에 완성한 사업이었다.

독립협회의 이와 같은 추진력은 결국 서재필의 급진적인 개혁성향과 맞물려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성향은 하루 빨리 과거를 청산하자는 서재필의

잠재된 울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의 육친 권속이 모두 폐족임을 당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한 불행을 기억 속에 되살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권이 되어 고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조국의 발전과 개혁에 자신의 역량과 결정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재필이 선택한 것은 과거의 전통,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자생활에서 한자·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택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었다.

이렇게 선택된 한글만의 문자생활은 동시에 그 한글의 띄어쓰기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서재필보다 조금 앞서서 기독교 선교사들도 조선에서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한글판 성서번역을 시도하였는데 그 때에 거기에서도 띄어쓰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서번역과 띄어쓰기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글을 다시 음미해 보기로 하자.¹⁰⁾

<한글 창제 이후 500년이 가까운 19세기 말엽까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시작한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권점이나 구두점에 의한 어구 분할 표기 이외의 띄어쓰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 그것은 한글이 자모 하나하나의 음소 문자이지만 그들 자모(곧 자음과 모음)는 초성·중성·종성이라는 명칭으로 재분류되어 음절의 형태로 조립되어 표기된다는 사실과 연계된다. 둘째, 한글은 한자를 문화 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조선조 사회에서 어디까지나 한자와의 조화 공존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조 문자의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과 연계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성은 한글의 띄어쓰기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문자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어쓰기로 적힌 글월을 띄어 읽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는 조선조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자 생활은 한자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음절 단위로 읽히는 한자와 음절로 조립되어 적힌 한글은 한자와 구별되지 않는 서법상의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또 글을 지은 사람이 이어쓰기로 적어 놓으면 읽는 사람은 당연히 띄어 읽을 수 있어야 글을 읽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한글이 아무리 쓰기 쉽고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자 문화의 전통적인 관행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19세기 말까지 연이어 왔던 것이다.

10) 拙稿(1990), 『初期翻譯聖經과 國語正書法』, 『崇實史學』 제6집, 192~193면.

그러나 이러한 전통 사회에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한글이 소개되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개혁해야 할 일차적인 대상이었을 것이다. 알파벳 문화 생활에 익숙한 서구인들이 내리닫이로 이어쓰기한 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알파벳 음소문자는 문자들을 단선상에 횡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낱말 단위로 띄어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런 서법이였다. 그러한 문화배경과 관습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쓰고자 할 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글을 띄어쓰기 방법으로 고치는 것 역시 자연스런 반응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방안은 무엇보다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접근한 것이 1880년대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 외방선교회(外邦宣敎會)의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통 사회의 문화 전통을 가능한 한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1880년대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기성사회(既成社會)의 전통적 가치 체계를 과감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그러한 기본 자세의 일환으로 국어 정서법의 띄어쓰기도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간행하면서 한글만 쓰기와 빈칸 띄어쓰기를 선택한 것은 과거 문화전통과의 단절을 마음 속 깊이 원하면서 조국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 서재필의 잠재적 의식과 표면적 개화계몽사상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대중계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글만 쓰기를 고집하는 일부 지식인이 이 사회에 상당수 힘을 얻게 하는 데 서재필의 한글만 쓰기의 전통이 활용되는 것은 서재필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六. 맺음말

최준(1960)의 한국신문사(韓國新聞史)에 의하면 독립신문을 통한 서재필의 언어문자상의 공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순 국문만 채용하였다.

둘째, 띄어쓰기를 실시하였다.

셋째, 언문일치를 통한 문체의 새 스타일을 창안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독립신문을 검토하는 어떤 사람에게나 도달하게 되는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누누이 국문·한글만 쓰기와 띄어쓰기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문체에 관한 세째항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태기로 하겠다.

독립신문의 문체는 크게 말하여 말하듯 적어나간 문체 곧 ‘강술형(講述形)·구어체(口語體)’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있으나 종결어미의 사용을 보면 기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결론 부분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논의는 그 글에 할애하겠다.¹¹⁾

글의 종류	기본 종결어미
논 설	-호노라 : 서술형 평서문
공공성 광고	-흠 : 어미 생략형
상업성 광고	-호라 : 명령형
관 보	-호다 : 탈시제형
잡 보	-호더라 : 인용형

띄어쓰기 양상은 이기문(198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호다’류 낱말의 선행어근을 ‘-호다’와 분리해서 적는 경향이 있는 점과 불완전 명사 ‘것’은 선행어와 붙여 쓰는 등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토록 철저한 띄어쓰기는 외국 선교사들의 성서번역에 나타난 것을 제외한다면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한글만 쓰기와 아울러 서체 필의 확고한 신념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11) 拙稿(1992), 「개화기 문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1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拙著(1999), 『國語文體變遷史』, 集文堂, 103~124면에 再收錄

그러면 이와 같은 언어 문자생활상의 개혁을 가능케 했던 서재필의 신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앞에서도 누차 언급된 것처럼 그리고 많은 논자들이 이미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은 서재필이 지닌 개화계몽사상에 말미암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재필은 한 나라의 문화가 과거에 쌓아놓은 정신문화 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100여년 전 우리나라의 지식층은 개화의식을 지니지 못한 보수적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이란 것도 한문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을 폭넓게 개화계몽으로 이끌려면 우선 국문만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였다. 그러므로 서재필의 선각자적 외침-한글만 쓰기/띄어쓰기. 이것으로 모든 신지식을 교육하자-은 분명 시대를 앞선 예지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서재필의 공적을 조금도 폄하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칭송하고 기려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보면 지나치게 한글 전용으로 흐른 나머지 전통문화의 단절이 초래되고 균형이 깨지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 욕심같은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에 서재필이 '우선 국문만으로 교육하기'를 주장하면서도 먼 미래의 길고 긴 문화 발전의 균형을 위하여서는 한자교육은 잠시 뒤로 밀어두자는 정도의 균형있는 사고와 발언은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참고문헌

- 金道泰(1948), 『徐載弼博士白紱傳』, 首善社.
- 金源容(1959), 『在美韓人50年史』.
- 宋建鎬(1970), 「독립문의 초석, 서재필—韓國近代人物百人選」, 『新東亞』 1970年 1月號.
- 宋建鎬(1972), 『偉大한 韓國人③—松齋 徐載弼』, 太極出版社.
- 沈在箕(1990), 「初期翻譯聖經과 國語正書法」, 『崇實史學』 第6輯, 崇實大學校史學會.
- 吳世應(1993), 『서재필의 개혁운동과 오늘의 과제』, 고려원.
- 이기문(1989),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周時經學報』 제4집.
- 이기문(1990),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玄鐘敏 編, 『徐載弼과 韓國民主主義』.
- 이정식(1984), 『서재필, 미국망명시절』, 정음사.
- 정진석 편(1996), 『독립신문, 서재필 문헌 해제』, 나남출판.
- 趙靈巖(1965), 『殉國先烈全集』, 協同出版社.
- 崔泰榮(1990), 「初期翻譯聖經의 띄어쓰기」, 『崇實史學』 第6輯, 崇實大學校史學會.
- 玄鐘敏 編(1990), 『徐載弼과 韓國民主主義』, 대한교과서주식회사.